

#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2. 3. 23(수)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02. 6454-4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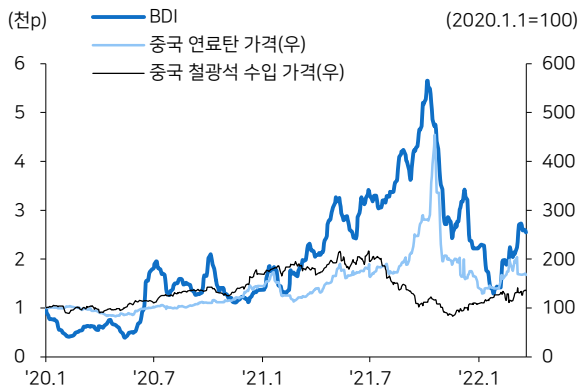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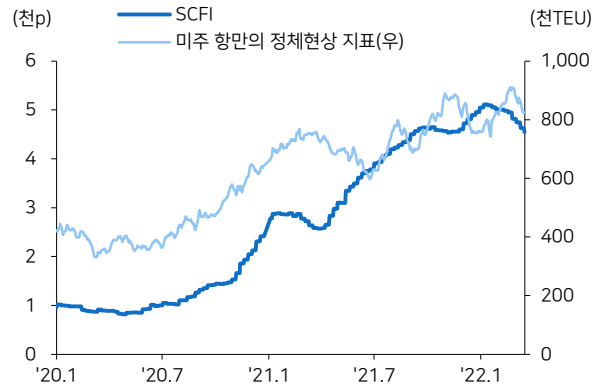


##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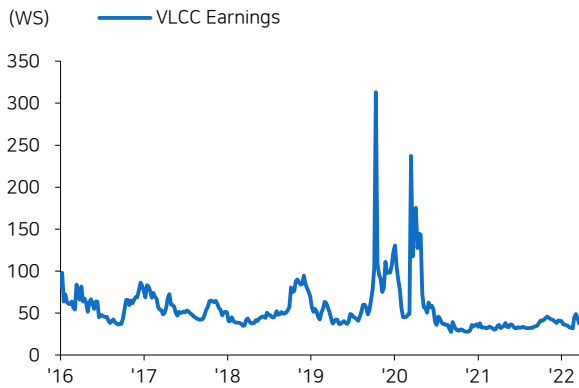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46.0p(-4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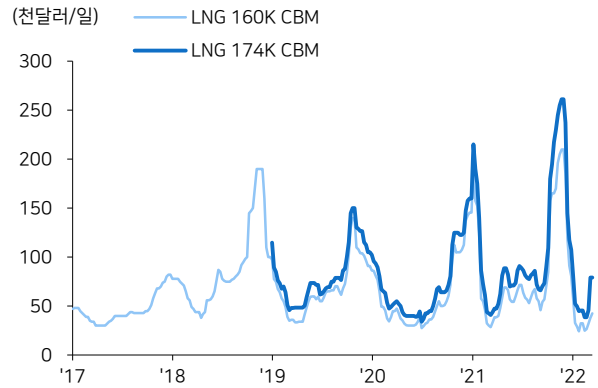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540.3(-84.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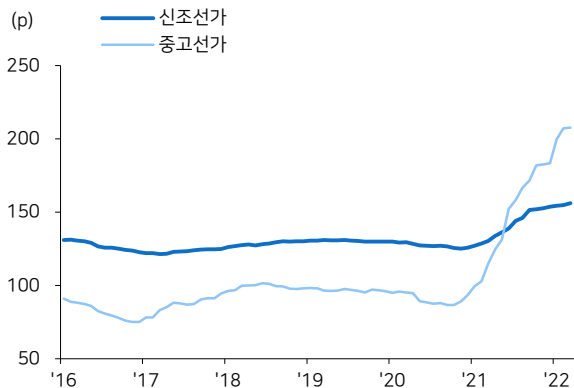
**VLCC Spot Rate** 37.7(-6.2p WoW)



**LNG Spot 운임** 42.5p(+4.5p WoW)  
79.3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6.1p(+0.3p WoW)  
207.7p(+0.1p WoW)



**항공시장 지표** 306.4p(+0.0p DoD)  
99.2p(+0.4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코로나 봉쇄' 중국, 한국산 식품·의류 품목도 검역 강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과 통관 문턱을 높이고 있는 중국이 한국산 식품과 의류 수입품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됨. 통관·행정 지연과 유통비 상승 등에 따라 수출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일부 지역 봉쇄에 따른 관계자 채택근무와 행정 지연으로 물류도 정체되고 있다고 보도됨. (경향신문)

### Record bulk carrier delays push port congestion beyond 2021 peak, says Clarksons

Clarksons에 따르면 기록적인 화물 폭주로 세계 주요 항만의 병목현상이 2021년 피크를 넘어섰다고 보도됨.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가 정체현상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3월 16일 컨테이너 항만혼잡지수는 2월 33.7%에서 35.2%로 증가함. (Tradewinds)

### 러시아, 우크라 전쟁 와중 "유럽에 가스 정상 공급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와중에도 유럽에 가스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됨. 러시아는 장기 계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에 매일 약 109.5CBM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됨. (뉴시스)

### McKinsey: Near-shoring a medium-term solution to high freight rates

McKinsey에 따르면 높은 컨테이너 운임이 2022년 동안 지속될 개연성이 있지만, 화주들은 다양한 대처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됨. McKinsey는 정체현상이 이르면 2022년 3분기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함.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미국 화주들이 'Near-shoring', 또는 인도 및 북미 공급자들을 통해 태평양 횡단 노선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언급함. (Tradewinds)

### Eastern Pacific and Euroseas emerge as behind container ship quintet at Hyundai Mipo

한국조선해양이 월요일(21일) 공시한 1,800TEU 컨테이너선 다섯척의 선주는 Eastern Pacific Shipping과 Euroseas로 보도됨. 각각 2척, 3척을 발주함. (Tradewinds)

###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 5척 수주 예상

현대중공업이 ONE이 발주할 13,000TEU급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할 조선사로 선정됐다고 보도됨. 일본 이마바리조선과 5척씩 나누어 건조하기로 건조의향서를 체결함. 선가는 척 당 약 1.6억달러로 추정됨. 선박인도는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